



Analyst. 손 지 우 / 3773-8827, jwshon@sk.com

점점 서스펜스가 되어가는 OPEC

▶ 금번 OPEC 회의는 감산합의연장보다, 사우디-러시아의 독단적 결정 속에 기타 OPEC 국가의 불만이 더 큰 이슈. 러시아는 여기서 이란을 두둔하며 모호한 태도 보였음. 과연 OPEC을 둘러싼 미국-러시아-사우디-이란의 관계는?

“2개 국가가 OPEC을 와해시키려 한다”라고 주장했던 이란

Iran will not exit OPEC despite 'infighting': Energy Minister

(전략) “Oil is not a weapon and it should not be politicised; we have always said that the oil market should be a-political and oil should not be used as a weapon, because it would hurt OPEC and its members, and I believe that these countries are taking OPEC towards collapse, but we want OPEC to be preserved; these two countries will undermine this organisation by instigating infighting in OPEC.” He added that the supply shortage caused by US sanctions against Iran could not be filled by other OPEC members. “No one can compensate for this vacuum,” he said. (하락)

자료 : Oil & Gas MiddleEast(2019년 6월 9일), SK증권

놀랍게도 이란을 두둔하며 미국을 비판한 러시아

Russian energy minister says tension in the Persian Gulf is not the fault of Iran

Russian Energy Minister Alexander Novak said Tuesday that Iran is not the cause of instability in the Persian Gulf and that sanctions against the country are “unlawful.” Iran’s oil exports, the government’s main source of revenue, have been hit hard. President Donald Trump reimposed heavy economic penalties last year in response to what his administration calls “malign activity” in the Middle East. In May, his administration ended the granting of waivers to the remaining importers of Iranian oil with the aim of slashing the country’s crude exports to zero. (하락)

자료 : CNBC(2019년 7월 2일), SK증권

- OPEC 정례회의가 싱겁게 끝났습니다. 현재의 감산 추세를 9개월 연장하여 내년 3월까지 계속한다는 내용이었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으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것이 없습니다
- 다만 조금 파고 들어가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OPEC의 합의였다기 보다는 OPEC 수장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non-OPEC 수장인 러시아가 합의하고 이를 나머지에 강요했다는 것이지요
- OPEC에는 사우디 외에 속적 이란 뿐만 아니라 같은 ‘좌파’ 계열인 베네수엘라, 리비아 등등이 있는데 그들로서는 불편한 심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 실제로 약 1개월 전, 이란 석유장관은 공개 인터뷰에서 “어떤 두 국가가 OPEC의 내분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응이었을까요. 이번 OPEC 정례회의가 끝난 후 러시아 석유장관은 “미국의 이란 제재는 비합법적이다. 그들은 걸프지역 불안을 조장하지 않았다”라며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 이란은 현재 미국의 제재 탓에 수출물량이 지난 해 4월 250만b/d에서 올 6월 30만b/d로 급감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마저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일단 ① 지난 해부터 NOPEC을 주장하며 와해를 의도하는 미국의 입장은 확실히 확인 됩니다
- 다만 ② 사우디는 애매해집니다. 美와 공조하며 트럼프가 요구한 감산을 유지 중이지만, 때문에 점유율도 美/러에 빼앗기고 남 좋은 일만 하는데 언제까지 이럴까요? 정말 OPEC 해체를 방관할까요?
- ③ 가장 모호한 러시아는 어떨까요? 이번 이란에 대한 지지는 美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데, 이들은 OPEC 편에 설까요, 美편에 설까요? 혹은 사우디 편에 설까요, 이란 편에 설까요?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권한 3단계 (6개월 기준) 15% 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 미만 → 매도

